

UR 農業協商斗 農業機械化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首席研究委員 姜正一

目 次

- I. UR 農業協商의 背景

- II. UR 農業協商의 主要 內容과 爭點
 - 1. 協商의 主要 內容
 - 2. UR 農業協商의 主要 爭點과 우리의 立場

- III. UR 農業協商의 推進 現況과 展望
 - 1. 協商推進現況
 - 2. 協商의 展望

- IV. UR 農業協商이 農業機械化에 미칠 波及效果
 - 1. 農業機械化에 미치는 否定的 波及效果
 - 2. UR 農業協商이 農業機械化에 미칠 肯定的인 效果

- V. UR 農業協商에 對應한 農業機械化 關聯 對策
 - 1. UR 協商過程에서 對策
 - 2. UR 農業協商 妥結 이후의 農業機械化 對策

- VI. 要約 및 結論

UR 農業協商과 農業機械化

戰後 自由 貿易에 의한 世界 經濟發展을 도모코져 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世界 貿易 秩序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있는 第 8次 多者間 貿易協商(UR 협상)의 15개 議題(관세, 비관세, 지적 소유권, 섬유, 서비스 교역 등) 중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農業임. 이는 UR 農業 協商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단순한 農産物 市場 開放 뿐만 아니라, 국내 農業 保護와 수출보조금의 대폭 감축, 그리고 관세율의 대폭 인하와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협상이 타결될 경우 世界 農業 經濟秩序의 재편과 함께 國內 農業全般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農業의 國際化, 開放化에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農業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議長 草案)에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農民과 農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것이며, 農業 生産 基盤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음.

특히, 政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農業機械化 事業이 UR 農業 協商 타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본 발표에서는 UR 農業協商의 背景, 主要 內容과 爭點, 推進 現況과 展望 등을 살펴보고, UR 農業協商이 農業機械化 事業에 미칠 波及效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코져 함.

I. UR 農業 協商의 背景

- 1947년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가 성립된 이래 무역 자유화를 위한 7차에 걸친 多者間 貿易協商(MTN)이 있었음.
 - 제 6차 케네디 라운드 협상(1964~1967년)에서는 관세인하가 主 議題였음.
 - 제 7차 東京 라운드협상(1973~1979년)에서는 관세 인하와 함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反덤핑, 보조금 상계 관세, 수입 허가 절차 등 9개 분야의 多者間 協定을 체결하였음.
- GATT 체제는 農産物에 대해서는 農業의 特殊性과 각국의 食糧 安保 및 農業 事情을 인정하여 무역자유화의 원칙에서 예외로 취급 각국의 農業保護 措置를 허용하여 왔음.

- 그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農業 保護 政策이 보편화되어 각국에서 수입 제한과 수출보조 정책의 실시로 世界 農産物 市場의 왜곡 현상이 초래되었음.
- 1980년 이후 美國과 EC의 農産物 過剩 生産으로 인한 재고 누적과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지급 확대 등의 결과로 개발도상국의 農産物 輸出이 감소하여 선진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
- 先進國(美國, EC)의 경우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경쟁적 확대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
- 특히, 美國의 경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農業 補助金의 삭감과 만성적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美國이 수출경쟁력이 있는 農産物 輸出 促進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先進國(EC, 美國)의 재정 압박 완화와 주요 農産物 輸出國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업 보조금 지급과 수입규제 조치를 철폐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압력의 결과로 GATT 第 8次 多者間 貿易協商(우루과이라운드)에서 農業 분야를 중요한 議題의 하나로 채택하게 되었음.

II. UR 農業協商의 主要 內容과 爭點

1. 協商의 主要 內容

- UR 農業 協商의 기본 골격은 1990년 7월 GATT의 第 8次 多者間 貿易 協商 『농업 협상 그룹』에서 듀주(Art de Zeeuw)의장의 책임하에 작성된 『農業改革에 관한 合意構想 : Framework Agreement on Agriculture Reform Programme』이란 제목의 『UR 農業協商草案 (議長草案)』에 기초를 두고 있음.
- 協商의 주요 내용은 農産物交易 自由化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國內 保護 措置, 국경 보호조치, 수출경쟁(수출보조), 동식물 검역 및 위생규제 등으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國內 農業 保護措置(Internal support)

農産物 貿易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형태의 국내 보조금을 일정한 유예기간(5~10년)을 거쳐 대폭감축 ; 각국은 품목별 『生産者 補助 相當額(Produce Subsidy Equivalent : PSE)』를 토대로 작성된 總 保護水準(Aggregate Measure of Support:AMS)에 따라 감축 목표액을 협상에 의해 결정.

(2) 國境保護(Border Protection)

각국이 국내 農業 保護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입쿼터, 수입허가, 수입 부과금 등 모든 비관세장벽을 관세화(tariffication)시키고, 『關稅相當額(Tariffication Equivalent:T.E)』을 계산하여 목표년한까지 일정수준 이하로 관세율을 감축.

(3) 輸出競爭(Export Competition)

각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모든 수출 보조금을 최단 기간내에 감축(美國은 모든 수출보조금을 5년내 감축할 것을 주장).

(4) 動植物檢疫 및 衛生規制

동식물 검역을 수입의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식물 검역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시키는 국제적 검역 기준의 합의 도출.

- 위 네가지 내용중 農業機械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國內 農業保護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II. 『UR 農業協商』의 主要 爭點과 우리의 立場

- 『UR 農業協商』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을 요약하면

- (1)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NTC)을 감안하여 국내 보조금의 감축 대상과 허용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
- (2) 市場 開放을 위한 관세화에 있어서 NTC을 고려하여 수입 개방 예외 품목 인정과 관세율 인하 수준을 조정

(3) 수출 보조금의 감축 수준

(4) 開發 途上國(수입국과 수출국 포함)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減縮 및 許容對象의 國內 農業補助政策

감 축 대 상	허 용 대 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격지원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자가격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하는 시책 -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원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장려금 ○ 부족분 지급(차액 보상) ○ 생산 요소 및 유통 비용의 절감을 위한 시책 ○ 금융 및 재정지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농촌을 대상으로 공공적 수혜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지도, 교육, 훈련, 검사 ○ 병충해 방제 ○ 유통 및 판매 촉진 - 공공목적 또는 복지목적의 보조 시책 - 환경 및 보전시책 - 자원전환 및 은퇴시책 - 재해보상, 작물보험 또는 국내 식품 지원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 지역개발 및 소득보호조치

1) 허용대책 보조사업 또는 시책의 기준

- 정부재정에 의한 지원일 것.
- 현재와 장래의 생산수준 또는 생산요소수준과 연계되지 않을 것. (생산으로 부터 생산요소를 빼내는 것의 경우는 제외)
- 특정품목이나 특정 생산부문에 한정적이지 않을 것. (일반서비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을 것.
- 소득보호조치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생산자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됨.

○ 우리나라의 立場

- 農産物 市場 開放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는 農産物

輸出國으로부터 강력한 시장 개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으로서의 특별우대 조치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사정으로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日本, 스위스, 동구국가 등과 함께 農業의 비교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시장 개방이나 국내보조금의 감축을 반대하고 있음.
- 農業 發展 水準의 차이를 인정하여 農業 構造 調整에 필요한 보조정책의 허용과 수입 규제의 인정 요구
- 農業構造 調整을 위한 특별유예기간의 설정을 주장

○ 主要國의 立場

- 美國 및 케언즈(Cairns)그룹은 국내 보조 및 수출보조금의 대폭 감축(30~50% 감축) 및 農産物 市場의 完全開放을 주장
- EC는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일정 수준 감축(35% 수준)
- 日本과 스위스 등 農産物 輸入國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農業의 비교역적 특성(NTC)을 강조하여 수입 개방의 예외 품목 인정과 농업 보호의 허용을 주장

III. UR 農業協商의 推進 現況과 展望

1. 協商推進現況

- 1986. 9 우루과이에서 第 8次 多者間 貿易協商(MTN)의 일환으로 『푸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이 채택되면서 UR 農業協商이 시작되었음.
- 지금까지의 협상은 3段階로 진행되고 있음.
 - 第 1 段階(1986. 9 ~ 89. 4) : 豫備協商段階
世界 農産物 교역 질서를 왜곡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진단과 각국의

국내 보조, 수출 보조, 국경보호조치 등의 철폐 내지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 합의

- 第 2 段階 (1989. 4 ~ 90. 7) : 具體化段階

UR 農業協商的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감축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상 의제로 국내보조, 국경보호 조치, 수출보조, 동식물 검역 규제 등 4가지를 합의하였으나, 각국의 입장차이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 第 3 段階(1990. 7 ~ 12) : 折衝 및 妥結 段階

-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드류 의장이 협상 초안을 작성 배부하였으나 합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협상 축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합의(23차 농업협상그룹회의의 7. 12~23)
- 제 24차 농업 협상 그룹회의(90. 8. 27 ~29)에서 10월 1일까지 각국의 國內 補助 및 輸入規制現況資料(Country List)와 10월 15일까지 각국의 補助金 減縮 및 輸入 開放 計劃資料(Offer List)를 제출기로 결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시한내에 제출하지 않다가 11월 초에 제출하였음

o 우리나라 CL 및 OL 제출내용(10. 29일 공식제출)

(1) Country List

- 국내 보조금 감축 분야에 있어서 總 保護 水準 計測(AMS)대상을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소채류, 과실류 등 12개 품목으로 국한하였고,
- 감축 대상 정책은 시장 가격 지지, 직접 지불, 일부의 要素補助로 국한하고 農業機械化, 일반 서비스, 災害報償, 構造調整政策 등은 허용 대상으로 분류

(2) Offer List

- 국내 보조금 감축은 가격 지지 및 품목 특정한 투입 보조에 한하여 1997년부터 10년간 30% 감축
- NTC품목으로 쌀, 보리, 쇠고기 등 15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예외
- 허용 대상 정책으로 개발도상국의 農業 發展 政策, 構造 調整 政策, 食糧安保 등 NTC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

- 관세 상당액(TE)은 10년간에 걸쳐 30% 감축
- 긴급 수입 규제 조치(safe guard) 제도화

2. 協商의 展望

- 11월 23일까지 GATT 각료회의에 상정될 모든 합의문이 작성 완료되어 12월 3~7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GATT 각료회의에서 UR 協商 妥結 및 協商 終結 宣言이 예정되어 있으나 각국의 참여한 입장 차이로 UR 農業 協商이 계획대로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그러나, UR 農業 協商이 결렬될 경우 다른 타분야의 협상의 일괄 타결이 어렵게 되므로 정치적 절충에 의해 협상기간을 연기해서라도 결국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IV. UR 農業 協商이 農業 機械化에 미치는 波及效果

UR 農業 協商이 타결될 경우 農業 機械化에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波及效果는 否定的인 側面과 肯定的인 側面이 있음.

1. 農業 機械化에 미치는 否定的 波及 效果

UR 農業 協商이 農業 機械化에 미치는 否定的 效果는 각종 보조금 감축에 의한 것과 農業 生産 基盤 위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補助金 減縮에 의한 波及效果

- UR 農業 協商의 핵심의제 중의 하나가 農業 補助金 감축이므로 政府 지원하에 수행되고 있는 機械化 營農團에 대한 보조금지급, 委託 營農會社 설립보조금, 農機械 購入 融資支援, 事後奉仕 施設 設置 및 部品 資金支援, 農業 機械用 免稅油類 供給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政府 지원하에 수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農業 機械化 事業의 내역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機械化 營農團 補助金 支給

機械化 營農團은 우리나라 機械化 政策의 핵심 사업으로 사업비의 50%가 政府 補助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까지 25,000개소가 조성되었고, 1992년까지 추가적으로 15,000개소를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는 갱신 수요를 감안하여 연간 7,000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機械化營農團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1989년 350억원, 1990년 400억원이었으며, 1991년 이후 약 500억원대로 예상됨.

2) 委託 營農會社 設立 支援

1991년에 16개의 示範委託營農會社를 설치하고 2000년까지 전국 면 단위에 1개소의 委託 營農會社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의 규모는 약 35억원(農機械 購入額의 50% 보조)으로 예상됨.

3) 農機械 購入 融資 支援

農民의 農機械 購入 資金의 80% 이상이 農業機械化 促進基金, 國民 投資基金, 農協 資金 등 연리 5%의 정책금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 융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원 달하고 있음. 향후 연간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年間 融資 規模를 5,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시중금리(12.5%)와 금리 차액은 연간 375억원($7.5\% \times 5,000$ 억원) 수준임.

4) 事後奉仕 施設 設置 및 部品 資金 支援

事後奉仕施設 設置 및 部品購入에 대한 融資支援 規模는 1990년 260억원으로 연리 8%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임. 따라서 연간 政府의 이자 보전액은 19억 5천만원(260 억원 $\times 4.5\%$)임.

5) 農業機械用 免稅 油類 供給

農業機械用 免稅油類의 공급량은 1989년 경우 458千 k1이며, 면세액은 16,139백만원임. 향후 農機械 공급 확대에 農業機械用 油類 免稅額은 200억원대에 이를 것임.

o 이상의 다섯가지 사업에 대한 政府의 연간 총 보조금액은 1990년 기준 약 1,030억원으로 UR 협상타결 결과에 따라 점진적 감축대상

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한편 農業保護 및 補助金 減縮計劃(Offer List : O/L)제출시에 農業機械化 事業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나. 農業生産 基盤 萎縮

- 한편, 장기적으로 UR 農業協商 妥結의 결과로 農産物 市場 開放과 각종 農業保護 조치의 감축으로 국내 農産物 價格下落과 農業의 收益性이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한 農業 生産의 위축이 불가피함.
- 예컨대 農産物市場 완전 개방시 관세상당액이 30~40% 감축될 경우 農家 所得 감소액은 1988년 기준 2조 7천억원(1988년 農産物 총생산액:13조)이 되며, 農耕地의 약 20%가 유휴화 될 것으로 추정. 따라서, 農民의 農機械 구매력 감소와 農耕地의 유휴화에 따른 農機械 需要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2. UR 農業協商이 農業機械化에 미칠 肯定的인 效果

- UR 農業協商이 추구하는 목표가 農産物 交易의 自由化와 함께 世界 農業改革을 의도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 분업과 비교 우위에 입각하여 각국의 농업 조건(자원, 기후, 기술, 자본, 노동력)에 적합한 농업 발전 모색
- 우리나라는 UR 農業協商 결과로 나타날 世界 農業 經濟秩序 개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國內 農業 對策을 수립하고 있음.
- 農業 對策의 기본방향은 農業生産性向上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農業 構造改善의 促進, 農民所得源 開發 및 農漁村 生活環境 改善임.
- 農業 構造 改善의 핵심 과제는 專業農 育成과 營農 規模 擴大, 耕地 基盤整備(경지정리, 배수시설 개선, 농로 포장)와 農業機械化임.
- 國際化, 開放化 時代에 우리 農業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農業構造 改善과 農業分野의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특히

農業構造 改善은 바로 農業機械化와 직결될 것임. 따라서, UR 農業 協商이 우리나라 農業機械化 속도를 가속화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V. UR 農業協商에 對應한 農業機械化 關聯 對策

1. UR 協商過程에서 對策

- UR 農業協商의 중심 議題인 農業 保護 및 補助金 減縮 問題는 협상 타결의 정도에 따라 農業機械化 事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UR 協商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耕地基盤整備와 農業機械化에 대한 政府 支援 施策을 農業保護 및 補助金 減縮 對象에서 예외로 할 것을 반영
 - 우리 農業이 國際化·開放化에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農業 構造 調整에 필요한 시간을 지금부터 10~15년을 허용받아 이 기간에는 機械化에 관련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가 제출한 農業 保護 및 補助金 減縮計劃(O/L)에는 農業構造 調整과 機械化에 관련된 감축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전부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진행중인 機械化 事業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중인 UR 農業協商이 보조금 감축협상은 40~50% 감축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바, 이 경우 농업기계화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액 삭감에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관철할 필요가 있음.

2. UR 農業協商 妥結 이후의 農業機械化 對策

- UR 農業協商 妥結은 農産物交易의 확대와 世界 農業生産體制의 일대

개혁을 예고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農業이 世界 農業의 發展 趨勢에 적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農業 構造 改善을 병행하여 技術과 資本이 결합된 勞動 集約的 農業으로 農業改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 農業의 生産性 向上을 위해서는 農業機械化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서기 2000년까지는 수도작을 위시하여 전작, 과수, 화훼·원예 등의 전작과 축산부문의 일관기계화를 완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政府 主導에 의한 農業機械化 事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農業機械化 事業(營農團에 대한 보조금, 農機械 購入資金에 대한 저리 융자, 事後奉仕 및 部品資金支援 등)이 서기 2000년까지는 현재 수준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 체계 확립과 農民의 農機械 훈련에 대한 政府 支援이 필요함. 또한 향후 전작, 과수, 원예, 시설농업, 축산분야의 기계화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 분야와 관련된 研究 및 新機種 개발, 그리고 農機械普及에 대한 政府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함.

VI. 要約 및 結論

UR 農業協商 妥結은 世界 農業의 일대 개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 農業 全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政府 主導에 의해 政策事業으로 추진되고 있는 農業機械化事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과정에서 農業의 비교역적 특성과 國際化·開放化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 農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가 제출한 OL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UR 協商 妥結 이후의 國際化·開放化 時代에 우리나라 農業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國際 競爭力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耕地 基盤의 정비와 경영 규모 확대 등의 農業 構造改善과 함께 農業機械化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農業機械化 政策은 우리 農業이 完全 機械化될 때까지 政府 主導에 의한 機械化 政策이 지속

되어야 하며, 특히 전작, 화훼, 과수, 시설농업, 축산부문의 機械化에 중점적인 支援 施策이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1. 農林水産部, 우루과이 라운드(UR) 農産物 協商 對應 方案 樹立을 위한 公聽會 資料, 1990. 10. 26.
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우루과이 라운드(UR) 議題別 協商의 進展狀況과 展望, 1990. 10.
3. 李載玉, “UR 農産物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內部 資料, 1990. 11. 20.
4. 農林水産部 農業機械課, 業務資料, 1990. 4.
5. 崔洋夫, “UR 農業 協商의 展望과 韓國 農業의 對應 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內部 資料, 1990. 10.